

여자 대학생의 일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어 유 경

정 안 숙

박 수 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심리학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들의 일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특히 사회적 지지가 갖는 매개 효과와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여자 대학생 82명을 대상으로 일상 스트레스 척도, 간이정신검사지, 부모-자녀 의사소통 질문지,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하여 각 변인들을 측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일차적으로 상관 분석, ANOVA, 회귀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 간의 관계 및 인구통계학적 집단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고,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여자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또한 여자 대학생들과 아버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간 상호작용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 대학생들에게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중요함이 밝혀졌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최근에 여자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시되고 아버지들도 여자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비교적 덜 불편해하는 경향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개입 장면에서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위한 제언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주제어 : 스트레스, 정신건강, 사회적지지, 부모-자녀 의사소통

* 본 연구는 2015년도 BK21 플러스 사업(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심리과학 사업단”)의 지원으로 투고한 것임.

[†] 교신저자 : 박수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0

Tel : 02-2123-5435, E-mail: parksoohyun@yonsei.ac.kr

사람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다(박지선, 2014; Ibrahim, Kelly, Adams, & Glazebrook, 2013). 특히, 인간의 발달과정 중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 체계가 확장되면서 지속적으로 시행착오와 좌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하며, 성인기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고 확고한 자아 정체감을 수립해야 하는 과업에 직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옥형, 2012; Arnett, 2000). 구체적으로, 대학생은 진로, 학업, 시간활용을 둘러싼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고,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 형성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sberg, Bowers, Renk, & McKinney, 2008; Ibrahim et al., 2013).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때까지는 과도하게 부모 및 교사에게 의존하여 입시 준비 위주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후 대학생이 되어 독립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업 관련 부담 뿐 아니라 취업에 대한 염려, 등록금에 대한 걱정 등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서경현, 오경희, 2009; 유계숙, 신동욱, 2013; 현안나, 윤숙자, 2012). 특히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 동일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했을 때 남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일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연구된 바(이경주, 1997; 천숙희, 2012; Hudd et al., 2000), 여자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정신건강 지표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서미, 최보영, 조한익, 2006; Morris, Rao, Wang, & Garber, 2014). 특히 남자 대학생들에 비해 여자 대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더 예민하게 지각하고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더 높은 우울감을 보이기 쉽다(공수자, 이은희, 2006; Bouteyre, Maurel, & Bernaud, 2007). 또한 일상 스트레스가 높은 여자 대학생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이나 전반적인 삶의 질도 낮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옥형, 2012; Lam, Wong, Ip, Lam, & Pang, 2010; Laurence, Williams, & Eiland, 2009). 일상 스트레스가 여자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들이 주로 정신건강 지표 중 우울과 불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일상 스트레스가 분노감, 신체적 증상, 편집증적 사고 등과도 관련된다고 밝히고 있어(박효정, 김미영, 정덕유, 2008), 일상 스트레스가 전반적인 정신건강 영역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겪는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스트레스와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 본 기존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을 순수하게 설명하는 변량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를 통해 스트레스에 따른 심리사회적 문제를 설명하는 데에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의 영향이 존재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김유선, 박미란, 이지연, 2013; Kessler, Price, & Wortman, 1985). 이러한 심리사회적 요인 중,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불안 등 각종 정신 건강 문제의 발병과 경과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Landman-Peeters, et al., 2005; Olstad, Sexton, & Sjøgaard, 2001). 즉,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박경민, 이민규, 2005; Barnett & Godlib, 1990).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남학생들보다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주요 변인으로 고려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박용두, 이기학, 2008; Cyranowski, Frank, Young, & Shear, 2000).

사회적 지지를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한 조절변인으로 보는 관점과는 달리,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김정희(1987)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가치관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영향에는 조절변인이 되는 반면, 전반적인 일상 스트레스의 영향에는 매개변인으로 기능한다고 밝혀졌다. 이숙자와 오수성(2006)의 연구에서도 일상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전반적인 스트레스로 간주 될 수 있는 일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데에 주목하기로 하였다.

한편, 청소년 또는 대학생들의 경우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정혜정, 2008). 김나리(2002)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에 부모 34.6%, 친구 33.3%, 이성친구 16.8%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서, 부모의 영향이 대학생 시기에도 여전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을 측정할 때,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을 이용하는 연구들도 많다(Colaner, Soliz, & Nelson, 2014; Gardner & Cutrona, 2004; Olson, Russell, & Sprenkle, 1983). 특히 여자 자녀들의 경우 남자 자녀에 비해 부모와의 대화량이 많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남자 자녀에 비해 여자 자녀들에게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다(권재환, 이은희, 2006).

구체적으로, Barns와 Olson(1985)은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을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개방적 의사소통과 가족의 적응성을 방해하는 폐쇄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다. 개방적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서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유형을 의미하고, 폐쇄적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의사소통 장면에서 의사 교환을 주저하게 되고 의사소통 내용 선택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조심하게 되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정의된다(Barns & Olson, 1985).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는 우울·불안·문제행동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고(노성향, 1994)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우울감 점수는 더 높게 나타났다(이영숙, 김정옥, 2002). 또한, 부모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정서적 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부적응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부모-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지연, 김효창, 현명호, 2005). 다시 말해, 자녀가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한다고 해도, 부모가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특별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서로 간의 이해와 친밀감이 높아지고 현실적인 대안 선택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자녀는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게 된다고 본다(김기정, 양애경, 2010). 특히, 여자 자녀에게서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아가치감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여자 자녀의 우울 및 불안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영미, 민하영, 2009; 최인재, 2007). 조하나와 백용매(2009)의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와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더 큰 우울감을 보고하고 있었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지 않는 경우 더 큰 정서적 어려움을 보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개방적 의사소통은 심리사회적 적응의 보호요인으로, 폐쇄적 의사소통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Yu et al., 2006).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녀들은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문영숙, 2008). 이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 양육이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서,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정서적 안녕감을 높이고 우울을 낮추는 변인이 된다(조수진, 2009).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자녀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의 영향력도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우울·불안이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예측력을 가졌다(최인재, 2007). 더구나 최근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들이 증가하고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면서 실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아버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백경숙, 권용신, 2004), 특히 여자 자녀와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여자 자녀의 높은 자존감, 높은 학업수행에 영향을 주며(Lee, Kushner, & Cho, 2007; Richards, Gitelson, Peterson, & Hurtig, 1991) 아버지와 친밀감을 높이 보고한 여자 자녀는 친밀감을 적게 보고한 경우보다 더 적은 문제 행동, 더 낮은 우울감을 보였다(Coley, 2003). 따라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부-자녀, 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으로 나누고, 이 변인이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 및 정신건강 지표들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스트레스가 여자 대학생의 정신건강 지표에 유의한 주효과를 갖는지와 함께,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지표 사이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자녀 및 모-자녀 의사소통 방식이 갖는 조절효과 여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종합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여자 대학생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볼 때, (1)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정신건강 지표들이 부정적일 것이다; (2)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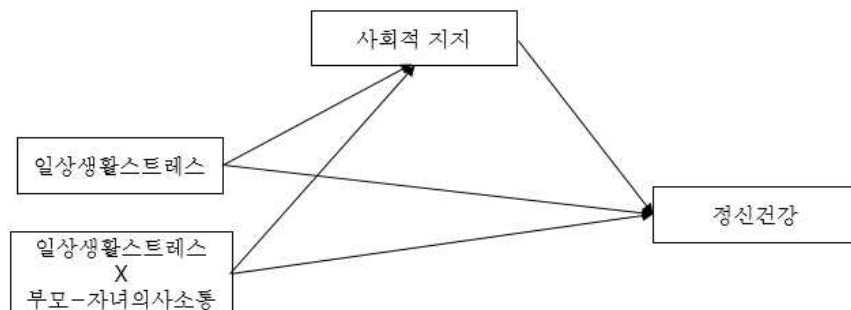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모형

다; (3)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정신 건강 지표들이 부정적일 것이다; (4)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매개할 것이다; (5) 스트레스·사회적 지지·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부, 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보호요인으로, 폐쇄적 의사소통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에 대한 모형이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 여자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시되

표 1. 연구 참가 대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빈도	비율
학년	1학년	4	4.9
	2학년	33	40.2
	3학년	23	28.0
	4학년	22	26.8
소속	문과대	21	25.6
	사회과학대	16	19.5
	경영대	18	22.0
	이과대	1	1.2
	공과대	9	11.0
	생활과학대	5	6.1
	의학, 치의학, 간호대	3	2.7
	음악대	2	2.4
기타	7	8.5	

었다. 본 연구는 학과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내 연구 시스템을 통해 심리학 관련 교양 및 전공 수업의 수강생들을 참여자로 모집하였으며 연구 참여 학생들에게는 규정에 따른 점수가 부여되었다. 총 설문지의 20% 이상을 미응답한 1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82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1.80($SD=2.02$)세였다. 주거형태 별로는 가족과 동거가 45명(54.9%), 자취 21명(25.6%), 기숙사 13명(15.9%), 그리고 기타(친척과 동거)가 3명(3.7%)이었다. 그 외,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도구

일상 스트레스 척도(Daily Hassles Scale:

DHS)

DHS는 Hassles and Uplifts Scale(DeLongis, Coyne, Dakof, Folkman, & Lazarus, 1982)을 DeLongis, Folkman과 Lazarus(1988)가 개정한 척도로, 한국판의 경우 김정희(1995)가 번안하고 표준화 과정을 거쳐 선정한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에서는 참가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걱정거리가 되었는지를 “전혀 아니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그 예는 “가족의 건강과 복지”, “내가 하는 일(공부)의 양” 등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응답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로 산출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83이었다.

간이정신검사지(Symptom Checklist-90-Revised: SCL-90-R)

SCL-90-R은 Derogatis(1977)가 개발한 검사로 심리적 고통과 증상에 기인한 문제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의 표준화 및 타당화를 거친 한국판 척도가 사용되었는데, 이 척도는 심리적 증상을 묘사한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은 증상을 느낀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0점)”에서 “아주 심하다(4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SCL-90-R은 9개의 하위 소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각각 신체화(예시문항: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강박증(예시문항: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만지고 썸하고 세는 것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예민성(예시문항: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보인다”, “이성을 대하면 어색하거나 부끄럽다”), 우울(예시문항: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울기를 잘 한다”), 불안(예시문항: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된다”, “두려운 느낌이 든다”), 적대감(예시문항: “자신도 견잡을 수 없이 울화가 터진다”,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공포·불안(예시문항: “혼자서 집을 나서기가 두렵다”, “자동차나 기차를 타기가 두렵다”), 편집증(예시문항: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거나 나에 관해서 속덕거리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내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신증(예시문항: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 같지 않다”, “내 마음 어딘가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이다.

연구 참가자들의 정신건강은 9개의 소척도 점수의 합으로 계산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로 산출한 각 소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신체화 .80, 강박증 .80, 대인예민성 .83, 우울 .88, 불안 .86, 적대감 .78, 공포불안 .68, 편집증 .78, 정신증 .80이었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질문지(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

PACI는 Barnes와 Olson(1985)이 개발하였으며 민혜영(1990)이 번안하였다. 원 척도는 응답하는 사람의 역할에 따라 부모용 질문지와 자녀용, 두 종류의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민혜영(1990)은 자녀용 질문지만 번안을 했고 본 연구에서도 자녀용만 사용하여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였다. PACI는 두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방적 의사소통(open communication)과 폐쇄적 의사소통(closed communication)이 그것이다.

소척도 중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 장면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 있고, 예로는 “나는 주저함 없이 아버지(어머니)께 내 주장을 이야기 한다”,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문제를 의논하기가 쉽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척도 중 폐쇄형 의사소통은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 장면에서 얼마나 주저하는지, 생각이나 감정의 개방을 꺼리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예로서,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화제 거리가 있다”, “나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어머니)께 요구하기가 두렵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모와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소척도는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를 아버지·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따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총 40개의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로 산출한 각 소검사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아버지-개방적 의사소통 .90, 아버지-폐쇄적 의사소통 .78, 어머니-개방적 의사소통 .90, 어머니-폐쇄적 의사소통 .82이었다.

사회적 지지 척도(Social Support Scale)

사회적 지지 척도는 Abbey, Abramis와 Caplan (1985)가 개발한 11개 문항의 척도를 유성은 (1997)이 변안한 척도이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문항 6개(예시문항: “주위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 주었다”,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정보와 충고를 주었다”)와 사회적 갈등에 관한 문항 5개(예시문항: “주위 사람들과 다투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불쾌하거나 화난 태도로 대했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들은 이 문항에 대해 “아주 조금(0점)”에서 “아주 많이(3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문항은 역코딩하였고, 총 11개의 문항 점수를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사회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81이었다.

분석방법

먼저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참가자의 주거형태,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각 예측 및 결과 변인들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가설 “(1)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정신건강 지표들이 부정적일 것이다; (2)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 것이다; (3)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정신건강 지표들이 부정적일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4)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매개할 것이다; (5) 스트레스·사회적 지지·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보호요인으로 폐쇄적 의사소통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AMOS 18.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하였고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그 대상이 아버지일 경우와 어머니일 경우를 나누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부모-자녀 의사소통, 그리고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 변인은 평균중심화했고 이 값을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모형의 적합성은 카이제곱검증, Tucker-Lewis Index(TLI), Comparative Fit Index(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을 사용하였는데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그 모델을 수용할 만하고(Kline, 1998) RMSEA는 0.10이하이면 모델이 자료를 적합시키고, 0.05이하이면 자료를 매우 잘 적합시킨다고 볼 수 있다(Steiger, 1990). 단, 연구 참가자 수가 적을 경우 RMSEA가 과소 측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겠다(Kenny, Kaniskan, & McCoach, 2014).

연구 참가자 수가 적고 정상 분포를 가정할

수 없는 경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정된 계수에 대해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여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을 설정하고 그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에서도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Bootstrapping 표본 수는 1,000 (Cheung & Lau, 2007),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는데 신뢰구간 속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 과

기초자료 통계 결과

일상 스트레스, 정신건강, 부모-자녀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의 상관 관계

일상 스트레스, 정신건강, 부모-자녀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사이의 Pearson 상관관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일상 스트레스는 정신건강

($r=.55, p<.01$), 폐쇄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부: $r=.33, p<.05$, 모: $r=.39,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개방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부: $r=-.17, p<.05$, 모: $r=-.33, p<.01$) 및 사회적 지지($r=-.31, p<.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일상 스트레스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의사소통 중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보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스트레스와 더 강한 상관을 보였다. 정신건강의 경우, 폐쇄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부: $r=.30, p<.01$, 모: $r=.38, p<.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개방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부: $r=-.18, p<.05$, 모: $r=-.33, p<.01$) 및 사회적 지지($r=-.47, p<.01$)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개방적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폐쇄적 부모-자녀 의사소통(부개방-부폐쇄: $r=-.69, p<.01$, 부개방-모폐쇄: $r=-.30, p<.01$, 모개방-모폐쇄: $r=-.67, p<.01$, 모개방-부폐쇄: $r=-.35, p<.01$)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러한 상관관계의 방향은 대상이 아버지일

표 2. 각 측정변인의 상관분석 결과(N=82)

변인	스트레스	정신건강	개방적의사소통		폐쇄적의사소통		사회적지지
			부	모	부	모	
스트레스	1	.55**	-.17*	-.33**	.33*	.39**	-.31**
정신건강		1	-.18*	-.33**	.30**	.38**	-.47**
개방적 의사소통	부		1	.38**	-.69**	-.30**	.27**
	모			1	-.35**	-.67**	.38**
폐쇄적 의사소통	부				1	.35**	-.30**
	모					1	-.31**
사회적 지지							1

주. ** $p<.01$, * $p<.05$

경우와 어머니일 경우 모두 동일했다. 사회적 지지는 폐쇄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부적상관(부: $r=-.30, p<.01$, 모: $r=-.31, p<.01$)을, 개방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정적상관(부: $r=.27, p<.01$, 모: $r=.38, p<.01$)을 보였다.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일상 스트레스,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차이 검증

연구 참가자들의 주거형태를 가족과 동거, 기숙사 거주, 자취, 기타로 나누어 각 집단의 일상 스트레스,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거형태 집단 별로 일상 스트레스($F(3, 79)=1.31, p=.27, partial \eta^2=.02$), 정신건강($F(3, 79)=.46, p=.71, partial \eta^2=.01$), 사회적 지지($F(3, 79)=1.26, p=.29, partial \eta^2=.02$), 부모-자녀 의사소통(개방적의사소통-부: $F(3, 79)=.54, p=.65, partial \eta^2=.01$, 모: $F(3, 79)=.98, p=.41, partial \eta^2=.02$, 폐쇄적의사소통-부: $F(3, 79)=2.21, p=.09, partial \eta^2=.04$, 모: $F(3, 79)=.76, p=.52, partial \eta^2=.01$)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참가자의 연령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 결과, 일상 스트레스($F(1, 81)=.38, \beta=-.05, p=.54$), 정신건강($F(1, 81)=1.05, \beta=.08, p=.31$), 사회적 지지($F(1, 81)=.26, p=.61$), 부모-자녀 의사소통(개방적의사소통-부: $F(1, 81)=.15, \beta=-.03, p=.70$, 모: $F(1, 81)=2.88, \beta=-.13, p=.09$, 폐쇄적의사소통-부: $F(1, 81)=2.14, \beta=.11, p=.15$, 모: $F(1, 81)=1.02, \beta=.08, p=.31$)에 대한 연령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문제 별 가설 검증 결과

가설 1: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정신건강 지표들이 부정적일 것이다.

여자 대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상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1, 81)=76.80, \beta=.57, p<.000$).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척도의 소척도 별로 살펴보았을 때, 스트레스는 신체화($F(1, 81)=25.73, \beta=.34, p<.000$), 강박증($F(1, 81)=68.02, \beta=.55, p<.000$), 예민성($F(1, 81)=63.27, \beta=.53, p<.000$), 우울($F(1, 81)=74.01, \beta=.56, p<.000$), 불안($F(1, 81)=40.50, \beta=.45, p<.000$), 적대감($F(1, 81)=19.65, \beta=.33, p<.000$), 공포불안($F(1, 91)=15.61, \beta=.30, p<.000$), 편집증($F(1, 81)=33.84, \beta=.42, p<.000$), 정신증($F(1, 159)=60.91, \beta=.53, p<.000$)에 모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 것이다.

여자 대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상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F(1, 159)=16.67, \beta=-.31, p<.000$).

가설 3: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정신건강 지표들이 부정적일 것이다.

사회적 지지가 여자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부정적인 정신건강 지표를 유의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 159)=55.25, \beta=-.51, p<.000$).

가설 4: 일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매개할 것이다.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적지지가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표 3에 제시하였고 모형의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CFI 지수(.90) 및 RMSEA(.10)를 기준으로 볼 때,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으로 직접 또는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의 매개를 거쳐 정신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적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를 살펴보고(그림 2) 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표 4) 스트레스가 정신건강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부분 매개 효과를 지닌다.

가설 5: 일상 스트레스·사회적 지지·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부, 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보호요인으로 폐쇄적 의사소통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양상에 따라 다를 것인데, 즉,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인데,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라 어떤 양상이 나타날 것인지를 검증하였고, 이를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으로 그 대상을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각 모형의

표 3. 일상스트레스-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 요약

모형	χ^2	df	TLI	CFI	RMSEA(90% CI)
스트레스-사회적 지지 매개모형	95.90	43	.88	.90	.10(.09-.12)
스트레스와 아버지-자녀의사소통 상호작용항 추가 매개모형	140.50	75	.90	.91	.10(.07-.13)
스트레스와 어머니-자녀의사소통 상호작용항 추가 매개모형	143.40	75	.90	.91	.10(.09-.13)

주. TLI = Tucker-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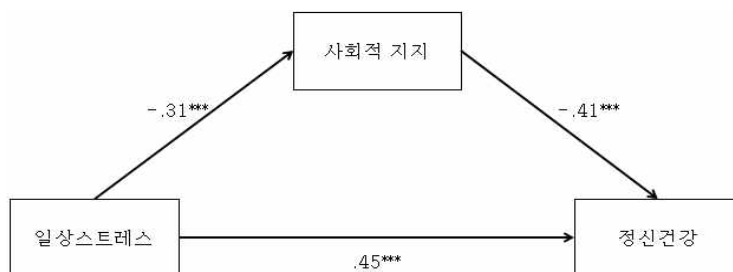


그림 2. 일상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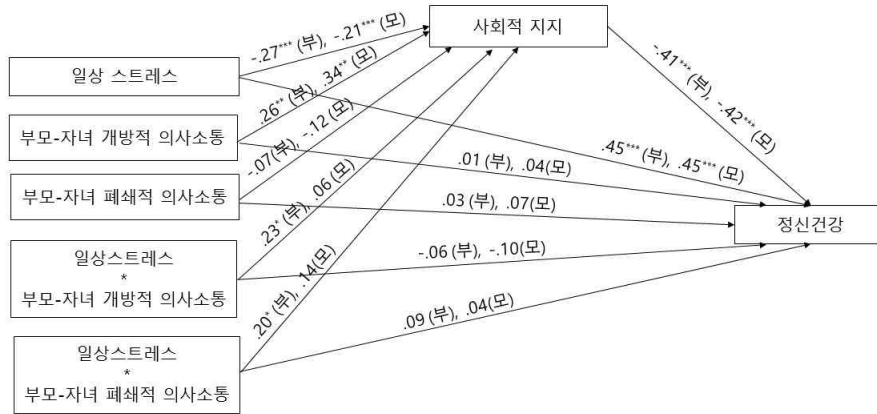


그림 3. 각 측정 변인 간 경로의 표준화계수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되었고, 모형의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는 그림 3에 기재되었다. TLI 지수(.90), CFI 지수(.91) 및 RMSEA 지수(.10)를 기준으로 볼 때,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을 추가하여 본 매개 모형은 의사소통의 대상이 아버지였을 때, 어머니였을 때 모두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각 경로의 표준화계수를 살펴 본 결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스트레스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였을 때도 스트레스의 정신건강에 대한 주효과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고 스트레스와 아버지-자녀 개방적 의사소통 간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스트레스의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검증된 반면,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은 개방적이든 폐쇄적이든 스트레스의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bootstrapping 결과가 스트레스와 아버지-자녀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사회

표 4. Bootstrapping을 이용한 간접경로 효과의 유의성 검증

경로	B	SE	95%신뢰구간
$X_1 \rightarrow M \rightarrow D$.031	.009	.017 - .046
$X_2 \rightarrow M \rightarrow D$	-.003	.001	-.006 - -.001

주. 추정치는 비표준화된 계수임. X_1 =스트레스, X_2 =스트레스*아버지-자녀 개방적 의사소통. M=사회적 지지, 95%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그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함.

적 지지-정신건강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의 일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하고 이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스트레스·사회적 지지·정신건강 간 관계에서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보호요인으로, 폐쇄적 의사소통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기존 연

구 결과와 같이 여자 대학생들에게도 일상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여자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고된 스트레스 경험 정도가 높을수록 부적응적인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더 많이 보고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되었다(이옥형, 2012; Lee & Larson, 2000).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이옥형, 2012; Lam et al., 2010; Laurence, Williams, & Eiland, 2009)에서 주로 측정한 우울이나 불안 이외에도 신체화 증상, 사고 문제 등 다양한 정신건강 지표를 함께 포함시켜 측정한 본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 스트레스는 우울이나 불안 뿐 아니라 다른 정신건강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상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유의하게 낮은 사회적 지지를 보고하였고 낮은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후의 분석에서,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정신건강에 대한 일상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영향이 여전히 유의한 가운데, 정신건강에 미치는 일상 스트레스의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박효정, 김미영, 정덕유, 2008; 소미현, 2015).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의 대상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또 의사소통 방식을 개방적 의사소통과 폐쇄적 의사소통으로 나눈 후 이들과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였을 때,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여자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폐쇄적인 의사소통방식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이영숙, 김정옥, 2002; Yu et al., 2006)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자녀의 정서적 상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연구들과는 맥락을 같이 했다(김기정, 양애경, 2010; 노성향, 1994; 이지연, 김효창, 현명호, 2005).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폐쇄적인 의사소통은 그 대상이 어머니이든, 아버지이든 유의한 조절효과가 없었던 것에 반해, 개방적 의사소통은 그 대상이 아버지일 때 여자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의사소통 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선행연구(조수진, 2009)와 상반된 결과이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정서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최인재, 2007). 특히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중, 여자 자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만이 자녀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김지연(2003)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나 아버지와 여자 자녀가 대화를 거의 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순응하기만을 강요하는 경우보다 자연스럽게 여러 주제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는 경우 자녀의 전반적인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와 일부 맥락을 같이 한다(Punyanunt-Carter, 2008). 또한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가 대학생이라는 점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즉, 대학생이 된 여자 자녀들은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을 각인하고 성취지향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대학생 이외의 발달시기보다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의 개방

적 의사소통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자녀 양육 및 상호작용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서 어머니 역할만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때와 달리, 현대 사회의 양육 장면에서는 아버지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커져서 자녀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Allgood, Becket, & Peterson, 2012; Holmes & Huston, 2010). 다시 말해, 아버지들은 남자 자녀에 비해 여자 자녀와는 상호작용을 적게 하고 관심을 덜 기울인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Hariss & Morgan, 1991) 최근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양식의 차이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여자 자녀를 대하기 어려워하는 아버지들의 경향성도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Hofferth, 2003).

한편, 아버지-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정신건강에 대해 미치는 스트레스의 영향에 작용하는 조절효과는 직접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할 때만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여 집단에게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큼을 다시 한 번 검증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즉, 대학생이라는 시기는 이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20대라는 발달학적 단계를 고려해 볼 때, 대인관계의 범위가 넓어지는 때인 만큼 이들에게 사회적 지원이 매우 다양하고 그 영향력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대인관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겠고, 이들에게 부모가 아닌 다른 형태의 대인관계에서의 관계 양상 및 관계의 질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 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82명으로, 본 연구가 사용한 잠재요인의 수에 비해 사례수가 적어서 모델 적합도인 RMSEA가 과소 측정될 수 있는 등의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수의 대상자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알아 볼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지만(Colaner, Soliz, & Nelson, 2014; Gardner & Cutrona, 2004; Olson, Russell, & Sprenkle, 1983) 전반적인 부모-자녀 간의 친밀감이나 애착을 함께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부모-자녀 간의 친밀감이나 애착 등을 측정한 후, 부모-자녀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명확히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의사소통의 내용과 관련된 질적인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하여 어떤 내용의 의사소통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 여자 자녀의 의사소통의 영향력은 어떠한 유형의 의사소통이든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친밀감이나 애착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단일 척도로 측정을 하였는데,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부모, 가족, 친구, 선후배 등 지원별로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지형태가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고려한 연구 또한 흥미로운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통제하고도 스트레스

가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미했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 또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이외의 변인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나 대처방식 등, 스트레스를 조절하거나 매개할 수 있는 다른 변인을 고려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부모-자녀 관계에만 국한된 변인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인관계 의사소통 패턴을 반영하는 변인일 수도 있으므로, 이를 부모-자녀 관계만을 반영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일반적인 대인관계 의사소통 패턴에 관한 변인 등을 통제 후 순수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후기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에도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은 유의미하다는 기존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고(김나리, 2002), 결국 이 시기에도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 또는 심리치료 장면에서 비록 대학생이 법적 성인의 연령을 초과했다고 할지라도 부모와 관련된 변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기존의 부모교육이나 양육관련 상담에서 여자 자녀의 양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에 추가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도 있겠다. 특히 자녀와 거리낌 없고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자녀와 편안하게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는 방법,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관

심과 격려, 공감적 반응을 적절하게 표현 하는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의사소통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상담 중재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공수자, 이은희 (2006). 여자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21-40.
- 권재환, 이은희 (2006).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1), 325-351.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김기정, 양애경 (2010). 청소년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취약요인과 보호요인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37(1), 29-55.
- 김나리 (200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선, 박미란, 이지연 (201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22(2), 69-85.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 (1995).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1), 44-69.

- 김지연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 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성향 (199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영숙 (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개념,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4(4), 405-414.
- 민혜영 (1990). Circumplex Model 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민, 이민규 (2005).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음주동기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277-293.
- 박용두, 이기학 (2008). 사회적 지지, 자존감, 진로포부 간의 성차 모형 검증: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의 매개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263-282.
- 박지선 (2014). 자기자비, 대학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전략 간 관계. 스트레스연구, 22(3), 131-138.
- 박효정, 김미영, 정덕유 (2008). 여대생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15(4), 513-521.
- 백경숙, 권용신 (200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6(2), 87-89.
- 서경현, 오경희 (2009). 경험논문: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건강에 대한 삶의 기대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633-648.
- 서미, 최보영, 조한익 (2006).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7(2), 271-288.
- 소미현 (2015). 여대생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일부 전문대학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6(1), 15-25.
- 유계숙, 신동우 (2013). 대학생의 학업, 취업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 및 취업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4(6), 3849-3869.
- 유성은 (1997). 완벽주의적 경향, 사회적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중년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주 (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숙자, 오수성 (2006). 상담 일반: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적극적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7(1), 27-45.
- 이영미, 민하영 (2009). 남녀 청소년의 신체상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에 따른 자아가치감. 인간발달연구, 16(4), 79-94.
- 이영숙, 김정옥 (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133-159.
- 이옥형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29-57.
- 이지연, 김효창, 현명호 (2005). 스트레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 자살 생각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4),

- 375-394.
- 정혜정 (2008).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기능과 자기분화 및 심리적 안녕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7(6), 1135-1149.
- 조수진 (2009).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성향,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및 우울 간의 관계. *통합치료연구*, 1(1), 19-33.
- 조하나, 백용매 (2009). 아동, 청소년상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2), 1035-1049.
- 천숙희 (2012).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속박감 및 정신건강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8(3), 223-235.
- 최인재 (200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이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611-628.
- 현안나, 윤숙자 (2012). 연구논문: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2), 403-428.
- Abbey, A., Abramis, D. J., & Caplan, R. D. (1985). Effects of different source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conflict on emotional well-being.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6(2), 111-129.
- Allgood, S. M., Beckert, T. E., & Peterson, C. (2012). The role of father involvement in the perceived psychological well-being of young adult daughters: A retrospective study.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4(1), 95-110.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Asberg, K. K., Bowers, C., Renk, K., & McKinney, C. (2008).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o the study of stres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emerging adul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9(4), 481-501.
-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2), 438-447.
- Barnett, P. A., & Gotlib, I. H. (1990).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ve symptoms among men and wome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1), 47-61.
- Bouteyre, E., Maurel, M., & Bernaud, J. L. (2007). Daily hassle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first year psychology students in France: The role of coping and social support. *Stress and Health*, 23(2), 93-99.
- Cheung, G. W., & Lau, R. S. (2007). Testing mediation and suppression effects of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1(2), 296-325.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 L.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 /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third edition)*.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laner, C. W., Soliz, J., & Nelson, L. R. (2014). Communicatively managing religious identity difference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The role of accommodative and nonaccommodative communication.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14(4), 310-327.

- Coley, R. L. (2003). Daughter father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psychosocial functioning in low income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4), 867-875.
- Cyranowski, J. M., Frank, E., Young, E., & Shear, M. K. (2000). Adolescent onset of the gender difference in lifetime rates of major depression: a theoretical mode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7(1), 21-27.
- DeLongis, A., Coyne, J. C., Dakof, G., Folkman, S., & Lazarus, R. S. (1982). Relationship of daily hassles, uplifts, and major life events to health status. *Health Psychology*, 1(2), 119-136.
- DeLongis, A., Folkman, S., & Lazarus, R. S. (1988).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3), 486-495.
- Derogatis, C. R. (1977). *SCL-90-R.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I for the revised version*.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Gardner, K. A., & Cutrona, C. E. (2004). Social support communication in families. In Vangelisti, A. L. (Ed.), *Handbook of family communication* (pp. 495-512).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arris, K. M., & Morgan, S. P. (1991). Fathers, sons, and daughters: Differential paternal involvement in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3), 531-544.
- Hofferth, S. L. (2003). Race/ethnic differences in father involvement in two-parent families culture, context, or economy?. *Journal of Family Issues*, 24(2), 185-216.
- Holmes, E. K., & Huston, A. C. (2010). Understanding positive father-child interaction: Children's, fathers' and mothers' contributions. *Fathering*, 8(2), 203-225.
- Hudd, S., Dumlao, J., Erdmann-Sager, D., Murray, D., Phan, E., Soukas, N., & Yokozuka, N. (2000). Stress at college: Effects on health habits, health status and self-esteem. *College Student Journal*, 34(2), 217-227.
- Ibrahim, A. K., Kelly, S. J., Adams, C. E., & Glazebrook, C. (2013).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of depression prevalenc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7(3), 391-400.
- Kenny, D. A., Kaniskan, B., & McCoach, D. B. (2014). The performance of RMSEA in models with small degrees of freedom.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doi:10.1177/0049124114543236.
- Kessler, R. C., Price, R. H., & Wortman, C. B. (1985).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1), 531-572.
- Kline, R. B. (199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London: The Guilford Press.
- Lam, T. P., Wong, J. G., Ip, M. S., Lam, K. F., & Pang, S. L. (2010). Psychological well-being of interns in Hong Kong: What causes them stress and what helps them. *Medical Teacher*, 32(3), e120-e126.
- Landman-Peters, K., Hartman, C. A., van der Pompe, G., den Boer, J. A., Minderaa, R. B., & Ormel, J. (2005).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problems in parent-offspring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 and anxiet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0(11), 2549-2559.
- Laurence, B., Williams, C., & Eiland, D. (2009). Depressive symptoms, stress, and social support among dental students at a historically black college and university.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8(1), 56-63.
- Lee, M., & Larson, R. (2000). The Korean 'examination hell': Long hours of studying, di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249-271.
- Lee, S. M., Kushner, J., & Cho, S. H. (2007). Effects of parent's gender, child's gender, and parental involvement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s in single parent families. *Sex Roles*, 56(3-4), 149-157.
- Morris, M. C., Rao, U., Wang, L., & Garber, J. (2014). Cortisol reactivity to experimentally manipulated psychosocial stress in young adults at varied risk for depression. *Depression and Anxiety*, 31(1), 44-52.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1), 69-83.
- Olstad, R., Sexton, H., & Sjøgaard, A. J. (2001). The Finnmark study. A prospective population study of the social support buffer hypothesis, specific stressors and mental distres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6(12), 582-589.
- Punyanunt-Carter, N. M. (2008). Father-daughter relationships: Examining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25(1), 23-33.
- Richards, M. H., Gitelson, I. B., Petersen, A. C., & Hurtig, A. L. (1991). Adolescent personality in girls and boys: The role of mothers and fathe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1), 65-81.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n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2), 173-180.
- Yu, S., Clemens, R., Yang, H., Li, X., Stanton, B., Deveaux, L., ... & Harris, C. (2006). Youth and parental perception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youth depression, and youth risk behavior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4(10), 1297-1310.
- 1차원고접수 : 2015. 10. 16.
심사통과접수 : 2015. 12. 05.
최종원고접수 : 2015. 12. 15.

The Effect of Female College Students' Stress on Mental Health: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Moderating Effect of Parent-Offspring Communication

Yookyung Eoh

Yonsei University

Ansuk Jeong

University of Utah, Asia Campus

Soohyun Park

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d the effects of stress on mental health of female college students, and in particular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the role of parent-offspring communication on this mediating path. The data regarding daily stress, mental health, social support, and parent-offspring communication style were collected from 82 female college students with Daily Hassles Scale, Symptom Checklist-90-Revised, Social Support Scal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Correlational analysis, ANOVA,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and to test the hypotheses. Results indicated that female college students' stress had negative effect on their overall mental health, and social support mediated this effect. Also the interaction between stress and open-communication with father in particular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ath to mental health via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support. This finding reflects the tendency that Korean fathers recently feel less uncomfortable to interact with their daughters, which is different with the traditional perspective. Especially,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support female college students for improving open-communication with fathers to alleviate the effect of daily stress on their mental health..

Key words : stress, mental health, social support, parents-offspring communication